‘사무총장 최재성’ 놓고 ‘文·李투톱’ 기싸움

〈재인〉 〈종걸〉

文 밀어붙이기에 비주류 강력 반발 내홍 격화

강기정 정책위의장·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유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고수하면서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의 ‘투 톱’인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사무총장에 최재성 의원, 수석사무부총장에 김관영 의원(현 조직부총장), 비서실장에 박광온 의원을 임명하는 내용의 당직인선 안을 제출했다.

또, 전략홍보본부장에는 안규백 의원을 내정하고 강기정 정책위의장을 비롯, 김영록 수석대변인과 유은혜 대변인은 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당직 인선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문 대표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됐던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다시 꺼내든 배경에는 비주류 인사들을 주요 당직에 배치함에 따라 ‘탕평’의 원칙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노 진영에서는 싸늘한 반응이다.

비노 진영 인사를 다른 당직에 열 명을 임명해도 친노 인사를 사무총장에 임명하면 탕평의 저울추는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무총장이 당연직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 위원으로 지도부와 공심위 간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공천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소통본부장 등 요직 네 자리를 지도부간 ‘협의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문 대표로서는 표결을 밀어 붙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무총장 임명을 놓고 표 대결을 강행할 경우 내부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사무총장 인선을 겨냥, “혁신 인선이 돼야 한다”며 최재성 카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상황이다.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가 문 대표에게 정치적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당직 인선을 마무리 짓겠다는 문 대표의 복안이 현실화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당직 인선을 둘러싸고 내부 분란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으면서, 문 대표가 이달 초 의원워크숍에서 공언한 ‘조기 총선체제 구축 구상’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문 대표는 홍보위원장에 광고 전문가인 손혜원 크로스포인트 대표를 영입, 눈길을 끌고 있다.

홍익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한 손 대표는 소주 ‘처음처럼’의 브랜드명을 지은 것을 비롯해 ‘딤채’(김치냉장고), ‘종가집 김치’, ‘엑스캔버스’(TV) 등의 이름을 지어 광고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손 위원장 영입에는 총선, 대선 등 주요 국면마다 홍보 분야에서 여당에 열세를 면치 못했다는 문제 인식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17일 국회에서 ‘18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 등 합의사항 발표를 앞두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황교안 인준 표결…野 의총 통해 참여 여부 결정

예결·정보·윤리위원장도 선출도…대정부질문은 하루 연기

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황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18일 오전 10시 소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는 합의해줬지만, 실제 표결에 참여할지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온 새정치연합을 설득하고자 국회 운영위원회 내에 인사청문 제도 개선 소위를 구성해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황 후보자도 국회에 총리 신분으로 처음 출석하는 19일 인사말을 통해 포괄적인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18일 예정됐던 국회 대정부질문은 하루 연기돼 오는 19일 경제분야를 필두로 24일까지 업무일 나흘간 열린다. 애초 18일 할 예정이었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24일로 밀렸다.

국회는 또 18일 본회의에서 김재경 국회 예결위원장 후보자, 주호영 정보위원장 후보자, 정수성 윤리특별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선출 동의 투표도 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설 질문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오는 19일(외교·통일·안보분야)·22일(경제분야)·23일(교육·사회·문화분야)·24일(정치분야) 나흘간 열리며, 여야 의원 40명이 질문에 나선다.

다음은 대정부질문자 명단.

▲외교·통일·안보(19일)=김영우·김세연·심윤조·이이재·조명철(이상 새누리당) 박주선·심재권·백군기·최동익·진성준(이상 새정치민주연합)

▲경제(22일)=정두언·정미경·이강후·류성걸·김희국(이상 새누리당) 오제세·신학용·김상희·김기준·이개호(이상 새정치연합)

▲교육·사회·문화(23일)=김학용·김기선·이채익·경대수·황인자(이상 새누리당) 안철수·노웅래·남인순·유은혜(이상 새정치연합) 서기호(이상 정의당)

▲정치(24일)=이한성·이우현·김동완·함진규·하태경(이상 새누리당) 추미애·서영교·김영환·진선미(이상 새정치연합) 박원석(정의당)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라운지

이정현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거부권 행사해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입장을 놓고 여권 내 계파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적 법률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준수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당청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던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비박(비박근혜)계로 꼽히는 정병국 의원은 “87%의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된 법임에도 일각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만들어 정부로 이첩하는 등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다”며 “이 문제를 갖고 일각의 청와대 비서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인데, ‘글자 하나에 고쳤을 뿐이니 어쩌느니’ 하는 식으로 입법부를 비아냥거리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 등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17일 수십 년 전 세워진 공립학교가 중앙부처로부터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립 초·중·고교가 50년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기존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공립학교의 국유지 무단 점유를 이유로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1년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교의 중앙부처 국유지 점유면적은 618만 6368㎡ (재산가액 2조8591억원)이고 연간 사용료는 714억원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는 올해 1월까지 전국 교육청에 국유지의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114억8100만원을 부과했다.

박 의원은 “해방 전이나 6·25전쟁 무렵에 지어진 학교에 대해 인제 와서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시·도교육청이 연간 700여억원의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내현,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공익법인이 애초 설립 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의 일부를 보통재산에 편입해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금인 보통재산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매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보통재산의 규모가 감소돼 공익법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를 포함했다.

또한, 성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하도록 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5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1. 전형일정

① 원 서 접 수 : 2015. 6. 8(월) ~ 19(금)

② 전 형 일 : 2015. 6. 22(월) 오전 10:00

③ 합격자발표 : 2015. 6. 24(수) 오전 10:00 ④ 등록기간 : 2015. 6. 24(수) ~ 26(금)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음악학과(M.A.)

2.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OO
		신학연구학과(M.A.T.)	OO
		유아교육학과(M.Ed.)	OO
		음 악학과(M.A.)	OO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OO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OO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OO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원학과(M.A.)	OO

믿음이 있는 대학·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투데이 경매

대인동 중심상업지역
유동인구많음
병원 카페 식당 적합
지하1층~지상4층
대지780㎡ 건물1993㎡
감정가24억7천
최저가13억8천

화순 금호타운아파트 남측
아파트 밀집지역 최고 상권으로
투자하기 좋은 건물
지하1층~지상2층
대지 424㎡ 건물 993㎡
감정가9억5천
최저가7억

운암동 대단지아파트단지
공실 걱정없는 우수상권
지하1층~지상3층건물
학원,PC방, 독서실, 카페 추천
대지532㎡ 건물796㎡
감정가8억5천
최저가5억9천

여수 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아파트 정문 맞은편 위치한
준주거지역 건폐율70%
용적률240% 대지면적3230.2㎡
대형마트,할인매장 추천
감정가23억6천
최저가23억6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

사 원 모 집

당사는 항만하역, 중량물, 특수화물, 플랜트, 조선선각블럭 운송전문업체로서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신호수 ············00명
골리아스크레인···· 00명
LLC크레인········ 00명
트랜스포터········ 00명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제출기한 2015년 7월말 까지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접수, 당사 E · mail ds4623388@naver.com 접수

(유)대승특수 크레인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6-8 Tel.(061)462-3382